

- Paik, L. George. 1971.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 Yonsei University Press.
- Park, Yong Kyu. 1991. Korean Presbyterianism and Biblical Authority : The Role of Scripture in the Shaping of Korean Presbyterianism, 1918-1953. Ph. 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Park, Hi Chun. 1997. Sermon Just Came From Bible. Seoul : Yo Dan Press.
- Rhodes, Harry A., ed. 1934.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 Presbyterian Church. Seoul : Chose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 Ro, Bong-Rin and Nelson, Marlin L., ed. 1983.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Seoul : Word of Life Press.
- Shearer, Roy E. 1966. Wildfire :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 Eerdmans.
- Wasson, Alfred W. 1934.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 Yun, Sung-Bum. 1964. Christianity and Korean Thought. 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高 神 大 學 校
論 文 集 第 23 輯
1996. pp. 55~70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

김 성 수*

목 차

- I. 서 론
- II.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
- III. 기독교 유아교육의 기초
 - 1. 하나님의 말씀
 - 2. 인간관
 - 1) 하나님의 형상
 - 2) 종교적 존재
 - 3) 전인적 존재
 - 4) 다차원적 존재
 - 3. 실재관
 - 4. 지식관
- IV. 기독교 유아교육의 몇가지 기본 원리
 - 1. 협동교육의 원리
 - 2. 전인교육의 원리
 - 3. '마음' (heart) 구비의 원리
 - 4. 창조세계 반영의 원리
 - 5. 기독교적 가르침의 원리
 - 1) 인도의 원리
 - 2) 개현의 원리
 - 3) 구조화의 원리
 - 4) 능력부여의 원리
- V. 맺는 말

* 교수(기독교교육과), 교육철학전공

I. 서 론

유럽의 오벌린(M. Oberlin), 오웬(R. Owen), 그리고 프로벨(F. Froebel) 등이 관심을 보였던 유아교육은 1950년대 이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한 발전과 변화를 보여왔다. 미국의 경우 1965년에 시작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젝트는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그후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 홈 스타트(Home Start) 프로그램을 낳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도 1980년대부터 급속한 발전을 보여왔다. 정부는 앞으로 유아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여성 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 극대화,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 교육 개혁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여성 운동과 여성 취업, 소득의 증가 및 아버지의 역할 변화,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대되어 갈 전망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관심에 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과 접근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은 주로 교회의 선교원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유아들을 맡아 돌보아주는 정도의 실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를 고찰해 보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발전에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II.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유아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 유아교육을 교회의 부설유치원이나 선교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유아교육 정도로 이해한다. 혹자는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러한 유아교육은 옹당 기독교적인 유아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유아교육이 기독교적 유아교육일 개연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유아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기도와 성경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과,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기독교 유아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기독교교육을 좁은 의미의 기독교적 신앙을 가르치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협의적 사고방식과도 같다. 기독교 유아교육이란 일반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기

독교적 요소를 단순히 가미하는 정도의 교육이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만이 교육을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유아교육의 장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요소들과 행위들이 성경적인 종교적 동인(religious ground motive)과¹⁾ 성경적인 세계관(worldview)을 바탕으로 조직되고 추진될 때 우리는 그 교육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관점, 유아교육의 기초와 내용, 그리고 방법, 행정과 평가 등 유아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육을 기독교적 유아교육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모든 교육은 그것이 진정으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면을 구성하는 전체 요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위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를 고찰하는 전단계로서 기독교 유아교육이 어떠한 기초위에 세워져야 하는 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III. 기독교 유아교육의 기초

기독교 유아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소에 대한 성경적 이해위에 기초하여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유아교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주어졌다.²⁾ 하나님은 먼저 창조세계(creation)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은 창조물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었다. 문서화된 성경이 아주 적었고 선지자들이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해 줄 수도 없었으나 이들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다(시19:1-6, 29:3-9).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계시는 또한 시간 세계 속에서 기록된 말씀(inscripturated Word)의 형태를 취하였다. 언어적 계시는 일시적이며 상실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계시를 신구약 성경이라는 기록된 형태로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 성경을

1) 종교적 동인은 인간 사회의 절대적인 중심적 동기로서 활동하는 영적인 힘이다. 이 근본 동인은 삶의 종교적 중심으로부터 삶의 모든 시간내적 표현들을 지배하며, 이것들을 존재의 참된 근원 또는 존재의 가정된 근원(supposed origin)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이 근본동인은 특정 시대의 문화, 과학, 사회구조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세계관을 심오하게 결정한다. 그런데 종교적 동인에는 어떤 영(spirit)이 작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나 아니면 우상의 영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확고 부동한 근거를 위해 영에 의지하며, 자신을 이 영의 봉사에 바친다. 인간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인간을 통제한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대면한다.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칼빈(Calvin)이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마치 우리 눈에 안경(spectacles)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은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다시금 바르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성경은 일반계시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과학, 예술, 문화의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한 안내서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갖가지 자원들을 탐구하고 이용할 때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시 119 : 105).

그런데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성육신의 말씀(incarnate Word)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요 1 : 1, 2, 1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그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적 이해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2. 인간관

기독교 유아교육은 또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기초하여야 한다. 성경적 인간관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1)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

성경적 인간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창 1 : 27, 9 : 6, 약 3 : 9).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비유컨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께 지식이 있으므로 인간도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인간에게 언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므로 인간도 부분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한 인간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의 장에서 아동을 존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마 18 : 1-14). 하나님의 형상인 아동을 결코 상품화되거나 조작(manipulation)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Spykman, Gordon J., *Christian Faith in Focus*, Ontario, Canada : Paideia Press Ltd., 1992, pp. 14-15. 고든 스파이크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국면을 창조의 말씀(creative Word), 선지적·사도적 말씀(prophetic-apostolic Word), 기록된 말씀(inscripturated Word), 선포되는 말씀(preached Word), 그리고 성육신의 말씀(incarnate Word)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분류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국면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류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조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육신의 말씀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종교적 존재

인간은 종교적 존재(homo religiosus)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미와 같은 사적(private)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는 결코 사적인 것이거나 인간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인간 삶 자체가 종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교적 존재라는 의미이다. 칼빈(Calvin)은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란 인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상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개별적 삶과 공동체적 삶은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삶 전체가 종교적이라는 의미는 곧 인간의 생활은 그 모든 활동 영역에서 섬김과 경배의 생활이라는 의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생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시장에 가든지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고 성격상 종교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총체적 자아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우상에 대한 경배로 봉사한다. 소위 말하는 중립적 영역은 인간 생활에서 결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은 본질상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

하우즈바르트는 “과잉발전한 서구를 위한 도움”(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³⁾ 이 기준은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고, 둘째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며, 셋째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을 따라 사회구조를 창조하고 문화를 형성한다는 기준이다.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나 아동, 그리고 그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의 결과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그 본질과 모양이 형성되고 채색되어질 수 밖에 없다.

3) 전인적 존재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항상 총체적 관점이며 전인적인 인간관(holistic views of man)이다. 이분법적(이원론적) 인간관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때로는 마치 이분법적 인간관이나 삼분법적 인간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항상 전인적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다.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으로서 인간”(man as heart)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핵심(the deepest core)이며, 종교적 삶의 좌소(the seat of his religious life)로서 전인(the whole of man)을 지칭한다. 또한 “영으로서 인간”(man as spirit)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의 인도하에서 인간 존재를 동기지우며 인도하는 능력을 지칭하면서 “인간 내부에서 밖으로”(from the inside out) 바라본 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때로 인간의 몸에 초점을 맞추면서 “몸으로서 인간”(man as bod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가시적인 현현이며 기능으로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바라본 전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혼으로서 인간”(man as soul)도 인간의 한 구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영혼이나 영은 인간안에 있는(in man) 어떤 것, 또는 인간에게 속해있는(of man)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 자신이 영혼이며, 인간 자신이 영이다(man is soul and is spirit.).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3) Goudzwaard, B.,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Ontario, Canada : Wedge Publishing Foundation, pp. 14-15.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나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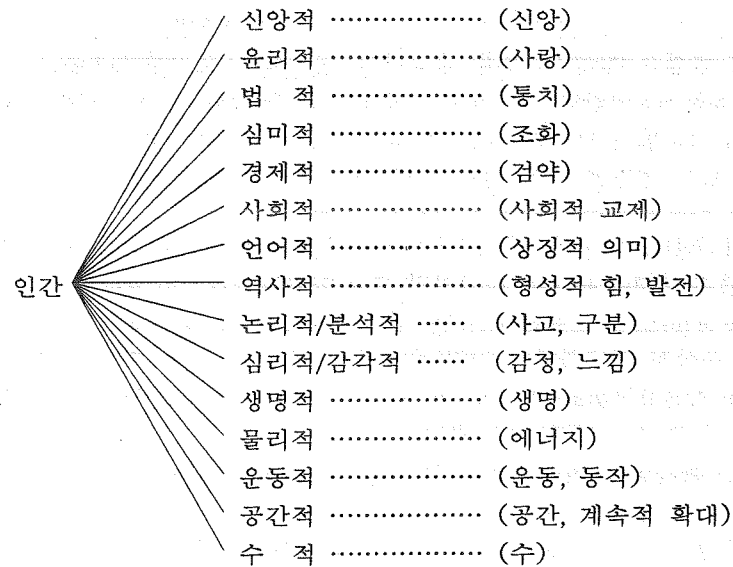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롬 12:1), 이 요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 부분 즉 우리의 영혼이 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구체적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또는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롬 12:2) 역시 단순히 분리된 지적(지성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성경적 인간관은 1/2+1/2=1 이라는 인간관이 아니라, 1+1=1 이라는 인간관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인간관은 단일론적 또는 이원론적 인간관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관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그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전인적 인간관을 기초로 해야 한다.⁵⁾

4) 다차원적 존재

전인적 인간관은 인간이 다양한 측면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화학적, 물질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며, 사고하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교통하고, 교역을 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공의와 신앙을 유지하며, 신앙을 실천할 줄 아는 존재이다.

우리는 이를 적어도 다음과 같은 15개의 국면(facets), 양상(aspects), 또는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4) Van der Walt, B.J., *Being Human in a Christian Perspective*,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77. p.11.

5) *Ibid.*, p. 16.

6) Spier, J.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Craig Press, 1976, p. 43. cf. Van der Walt, B.J., *Ibid.*, p. 18.

이들 여러 다양한 국면들 사이의 구별은 물질, 식물, 동물, 인간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 물질: 단지 처음 4가지 양상(수적 측면에서 물리적 측면)만을 보여준다.
- (2) 식물: 살아있는 존재 (생물학적 기능을 추가한다).
- (3) 동물: 더 복잡한 피조물이다. 이들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적 측면이 추가된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가장 복잡한 피조물이다. 이미 살펴본 측면들에 추가하여 인간은 코끼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9가지의 특징을 더 드러내 보여준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역사를 만들고, 말하고,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며, 예술을 창조하고, 법을 만들며,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 신(들)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에서는 이상의 15가지의 기능들 중 단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인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어 왔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또는 경제적 존재,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성적-도덕적 존재로 불리워져 왔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이나에 대한 단순화 또는 환원주의적 이해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는 단지 일차원적 또는 이차원적 인간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being)이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인간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다차원적 인간이해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한다.

3. 실재관

기독교 유아교육은 또한 성경적인 실재관에 기초하여야 한다. 우주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실재의 법칙성과 변화성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은 교육의 형태와 체계를 다르게 이끌어 간다.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조세계의 법칙성과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특별히 창조세계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세계를 접하고 그 표지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인간 존재의 다차원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 실재는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의 물리적, 화학적 측면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조실재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단 한두가지의 측면일 뿐이다.

밝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굴절되면 아름다운 색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빛줄기로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창조실재를 다양한 측면(양상)으로 배열해 준다.⁷⁾ 실재에 대한 비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실재의 한 측면만을 선택하여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로 삼게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심리주의, 경제주의, 역사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등과 같은 각각의 ‘주의’(-ism)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해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세계 전부를 담기에는

7) 알버트 그린,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읽기,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p. 28.

부족한 그릇이다. 피조물 중 어느 하나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 중 어느 한 측면도 절대화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실재의 이 모든 다양한 측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유지되고 통일성을 이룬다.

4. 지식관

기독교 유아교육은 성경적 지식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식에 대한 관점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많은 기능 가운데 한 기능인 보수적 기능은 가치있고 타당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주는 일이며, 그러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이다. 따라서 만약 지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교육실체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중립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지식은 질서와 의미, 인간의 본질, 목적, 과업,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일련의 신념의 틀(framework) 안에서 획득되고 축적되며 전수되어 간다. 지식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수동적 수납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전체를 따라 실재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해석해 가는 것이다.⁸⁾ 교육이란 아동을 이와 같은 지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중립적, 탈가치적(value-free)인 행위일 수 없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지식의 주요 원천이며 가장 본질적인 인식론적 권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감각, 이성, 권위, 직관 등 다른 모든 지식의 근원들은 성경의 조명하에서 검증되어야 한다.⁹⁾

성경적 지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dynamic)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리와 거짓은 말이 아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때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면, 그 때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나단 코졸(Jonathan Kozol)은 ‘밤은 깊고 집은 먼데’(*The Night Is Dark and I Am Far from Home*)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진리는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이 취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진리는 시험문제에 정답으로 주어지는 단어나 잘 쓰여진 낱구도 아니며 진리는 인쇄될 수 있는 알맞은 말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옳은 행위이다.”¹⁰⁾

성경은 또한 우리의 지식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후 8:7, 엡 3:16-19). 파커 팔머는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려면: 교육의 영성”에서 현대적 지식은 두가지 동력, 즉 ‘호기심’과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순수과학을 선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기술을 선사한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거나 선한 삶을 살려는 욕구는 잃어버렸다. 지식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에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¹¹⁾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그 어떤 피조물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8) Doug Blomberg, "If life is religion, can school be neutra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Papers* 67, July 1980, pp. 5-11.

9) 김성수, *교회교육론*, 서울: 총회교육위원회, pp. 52-54.

10) 알버트 그린 지음,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5, p. 26.

11) *Ibid.*, p. 29.

마음이 세속적이고 현대적인 마음과 다른 것이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하는 동기와 관점에서 차이를 보여야 한다.

IV. 기독교 유아교육의 몇가지 기본 원리

지금까지 기독교 유아교육이 근거해야 하는 기초를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기독교 유아교육의 기초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교육적 함의적 또는 원리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협동교육의 원리

성경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제 일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육의 명령은 처음부터 교사 집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어졌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양육(교육)을 감당해야 할 일차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적 기능이 없으면 아동들은 신체적인 면에서는 물론 정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격심한 곤란을 겪게 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신명기 6:4-9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교육시킬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엡 6:4 역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양육의 책임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적인 책임이다.¹²⁾

부모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학교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교육활동을 담당해 왔다. 사회구조와 문화양상이 비교적 단순했던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대체로 참여, 시범, 모방의 형태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모들로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교사)과 구조를 모색하게 되고 여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학교제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교사와 학교는 결코 부모와 가정의 대리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는 결코 부모의 대리인이 아니며 학교는 가정의 연장이 아니다.¹³⁾

12) John M. Otis, "The Necessity for the Christian School", *Journal of Christian Reconstruction*, Vol. II, No. 2, 1986-87, p.28.

13)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2, pp.16-17.

사회제도의 일차적 기능과 권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기관은 반드시 학부모의 권위와 책임을 존중하고 학부모와 협동적인 관계속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부모의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2. 전인교육의 원리

전인교육이란 성경적 인간관을 기초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교육원리이다. 전인교육이란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관점을 배격하고,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신체적 측면 등 전 부분에 걸쳐 인간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려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인교육의 노력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마다 항상 있어왔다. 고대 헬라 사회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근대 사회에서도 전인교육은 항상 각 시대마다 교육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찌가 3H의 조화교육 즉, 머리(Head), 가슴(Heart), 손(Hand)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한 교육을 주창한 것도 전인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전인교육을 위한 이러한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실체는 빈번하게 지식중심의 전통적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과학과 기술교육에 치중해 있는 학교교육의 병폐를 바라보면서 아동 개개인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데 관심을 보여야 한다.

3. '마음'(heart) 구비의 원리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heart)을 구비시키는 일에 모든 교육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의 마음은 생활의 근원이며 모든 생각과 사상의 원천이다.¹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기술, 지식들이 때로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유아교육은 단순히 성경지식의 단순한 전달이나 전수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수시켜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잘못 구비되어 있으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인간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주지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되어 모든 생각과 행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4. 창조세계 반영의 원리

기독교 유아교육을 통해서 아동이 배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질서이다.

14) J.M. Spie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The Craig Press, 1976, p. 16. '마음'은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을 2:13). 성경에서 마음은 때로 인간 삶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앙적 목표와 내용 : 안정감, 헌신감, 신뢰감, 위탁감의 발달. 찬송과 기도, 예배의 가르침 등
- 2) 윤리적 목표와 내용 :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등
- 3) 법적 목표와 내용 : 지도력의 계발, 규칙과 질서의 준수 행동 등
- 4) 심미적 목표와 내용 : 미적 감상력과 표현력, 조화와 균형 감각의 발달,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상 능력의 계발 등
- 5) 경제적 목표와 내용 : 돈을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발전, 재물의 청기지적 의식의 계발 등
- 6) 사회적 목표와 내용 : 사회적 교제 능력의 계발(친구사귀기, 더불어 지내기 등)
- 7) 언어적 목표와 내용 : 언어생활(읽기, 듣기, 말하기 등)과 상징적 표현 능력의 계발
- 8) 역사적 목표와 내용 : 사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 계발
- 9) 논리적/분석적 목표와 내용 : 논리적 사고력의 함양(사물의 분류와 추리능력 등)
- 10) 심리적/감각적 목표와 내용 : 기본적인 감각 기능의 발달, 정서적 표현 활동 등
- 11) 생명적 목표와 내용 : 생명에 대한 관심
- 12) 물리적 목표와 내용 : 사물에 대한 관심
- 13) 운동적 목표와 내용 : 운동과 신체조절기능의 계발(신체 기관에 대한 관심과 활동 등)
- 14) 공간적 목표와 내용 : 공간지각 능력의 발전(기본 도형 인식 및 구성 활동 등)
- 15) 수 적 목표와 내용 : 기초적인 수학적 사고능력의 발전(수의 기초개념 이해 등)

이상의 순서는 중요성의 순서가 아니라 복잡성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목표와 내용을 절대시 하거나 중요시하고 다른 목표와 내용은 소홀히 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상위의 목표와 내용은 항상 하위의 목표와 내용을 인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신앙적 교육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논리적인 교육의 결과들이 잘못된 방향을 지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기독교적 가르침의 원리

기독교 유아교육은 인간관과 교육의 목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특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의 관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기독교적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의 밴 다이크(John Van Dyk)와¹⁵⁾ 스트롱크(Gloria

근원(렘 4:18), 사상의 배경(출 28:10), 모든 지혜와 이성의 배경(시 90:12), 말과 행동의 배경(마 12:34, 15:19), 정서적 생활의 배경(잠 15:13), 죄의 근원(창 8:21), 인간의 전 존재의 가장 심오한 핵심(시 51:12)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15) John Van Dyk, "Teaching Christianly: What is it?"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2): 26-27. 1986.
 _____, "Teaching Christianly: What is it? (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3): 10-11. 1987.
 _____, "Teaching Christianly: What is it? (I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4): 10-11. 1987.

G. Stronks),¹⁶⁾ 호주의 블롬버그(Doug Blomberg), 그리고 캐나다의 밴 브루멜렌(Harro Van Brummelen)¹⁷⁾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인도의 원리

교사는 흔히 목자에 비유될 수 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함에 있어서 어디에 푸른 초장과 마실 물이 있으며,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그 방법에 있어서 목표지향적인 인도의 요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아동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사는 합법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권위는 인격적인 권위여야 한다.

교육이란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개인이 취한 경험의 결과로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기술과 예술과 학술이 보존되고 증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개인에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주장하는 태도와 철학에 따라서 교육의 성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교육적인 경험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진다. 전통적인 교육은 주로 전자의 편에서 교육적인 경험을 외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적인 인간 개인의 흥미나 동기를 무시하고 오직 성인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외적으로 전수하고 보존하는 것에 교육의 사명을 두었다. 그래서 아동들을 성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틀을 향해 훈련하고 주입하며 이끌어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는 반대로 루소(J.J. Rousseau)의 사상에 기초한 새교육운동에 한 자극을 일으킨 낭만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내적인 가능성에 바탕을 둔 피교육자의 흥미와 동기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발성과 능동적 활동을 장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¹⁸⁾

기독교 유아교육은 전자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교육'(education from without)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후자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교육'(education from within)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기독교적 인도(guidance)는 자아와 외적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므로 이 양자의 배척적인 극단주의가 아니라 양자의 조화통일을 지향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아동으로 하여금 저러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인도의 기능은 어떤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르침의 활동은 분명히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교사는 역할모범(modeling), 훈련(discipline), 격려(encouragement), 동기부여(motivation), 그리고 경건활동(devotional activity) 등을 통해서 아동에게 분명한 방향(guidance)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6) Gloria Goris Stronks and Doug Blomberg ed., *A Vision with a Task*,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s, 1993.

17) 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 Christian Approaches to Learning & Teaching*, Burlington, Canada : Welch Publishing Co., 1988.

18) 박봉목, *교육이론과 실천원리*, 대구 : 학문사, 1977, pp. 21-22.

2) 개현의 원리

기독교 유아교육의 한 핵심적인 과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비참한 결과, 그리고 그리스도안에서의 우주적 구속사역을 아동들에게 펼쳐보여주는 것이다. 개현(unfolding)이란 문자 그대로 '열어보여 주는 것'(opening up) 즉 아동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어내어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어펠드(Calvin Seerveld)는 가르침의 활동을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파악되거나 실행되지 아니한 경이(wonders), 차이(differences), 행동(actions) 등을 개진해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르침의 개현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¹⁹⁾

교사가 아동에게 펼쳐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생활과 잠재능력을 포함하여, 창조세계의 오묘함과 신비함은 물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왜곡과 변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겨진 죄의 결과, 그리고 화해와 구속의 가능성을 선포한다는 면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펼쳐보인다'는 것은 단지 말로 전달하거나 강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아이들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때때로 학생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학급을 위해서 '펼쳐보이는 자'가 되어, 교사 대신 조사 발표나 강의를 한다. 펼쳐 보임으로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 세상에 편만한 죄의 영향력에 대해 마음 아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펼쳐 보임은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지식을 평가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그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가치 체계를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3) 구조화의 원리

기독교 유아교육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도출된 삶의 의미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급 구조에는 존경, 사랑, 용서, 화해, 진실함, 그리고 의와 공평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교사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마음 문턱에는 다다를지 모르나 마음 깊숙한 곳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 결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교사들은 비록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기독교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여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의를 가로막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기독교 원리에 대한 지적 지식은 학생들 개인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특별히 기독교 유아교육은 모든 아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아동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4) 능력부여의 원리

19) Calvin Seerveld, *Cultural Objectives for the Christian Teacher*, Toronto, Canada : ICS, n.d. pp. 18-19.20) Robert Coles and L. Genevie, *The moral life of America's school children*, Teacher 108 : 43-49, 1990.

기독교 유아교육의 능력부여 원리는 아동으로 하여금 하나님 지으신 세계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redemptive work)에 능동적이며 유능한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과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행의 과정은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어떻게 아동으로 하여금 장래에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동으로 하여금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숙되고 책임성있는 기독교적 제자도로 아동을 인도해 간다는 궁극적 목표를 교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능력부여의 원리 또는 실행의 원리는 가르침의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와 수준에 걸쳐서 일어난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어떤 기술(skill)들을 가르치는데 성공하게 되면 교사로서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아동으로 하여금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특색지워지는 현대사회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되면 가르침의 주된 과업이 완수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소명감'(sense of calling)을 왜곡시킨다.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의 가르침이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의 연령과 성숙단계에 알맞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들로 하여금 분간(discern)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창조주와 피조물을 올바르게 분간할 줄 알며,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의 영역을 분간하면서 각각의 영역에 그 정당한 위치와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줄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아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고통을 나누며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생산체제처럼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공교육 제도는 사랑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해 줄 수 있는 인간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은 취급의 유사성과 결과의 일치성을 가진다.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 자율성과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공교육은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대규모로 양산해 내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교육적 영웅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성취하는 개인이다. 우리 교육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아는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본질은 계속해서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리고 성취와 진보는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현대의 도덕교육에서는 "서로 짐을 진다"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위한 "심리적 보상"(psychic reward)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콜스(Robert Coles)에 의하면 오늘날 아동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어떤 확고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이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또는 그런 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니까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²⁰⁾ 아동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들이 살고 있는 보다 큰 사회의 가치를 단순히 반영해 보여준다. 오늘날 아동들에게서 우리는 소위 "문화적 문맹률"(cultural literacy)은 낮아져 가지만 반대로 "도덕적 문맹률"(moral literacy)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유아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가치와 삶에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교육적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V. 맺는 말

기독교 유아교육은 일반적, 세속적 유아교육의 프로그램에다 기독교적 내용을 단순히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다. 아동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유아교육에 참으로 중요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마치 모든 유아교육을 기독교적인 유아교육으로 만들어주는 보장책인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세속주의의 영향은 사자의 전략이 아니라 여우의 전략을 사용하여 유아교육의 장에도 스며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의 장의 모든 면에서 내적 변혁(inner transform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계시관, 인간관, 실재관, 지식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체계를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체가 근거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는 이러한 기초를 근거로 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이며 순종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태도와 능력을 가진 아동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의 유아교육이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 Robert Coles and L. Genevie, The moral life of America's school children, *Teacher* 108 : 43-49, 1990.

김성수, *교회교육론*, 서울 : 총회교육위원회, 1993.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2.

박봉목, *교육이론과 실천원리*, 대구 : 학문사, 1997.

알버트 그린,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읽기*,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알버트 그린,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Blomberg, D., "If life is religion, can school be neutra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Papers* 67, July 1980.

Coles, R. and L. Genevie, The moral life of America's school children, *Teacher* 108 : 43-49, 1990.

Goudxwaard, B.,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Ontario, Canada :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89.

Otis, J.M., "The Necessity for the Christian School", *Journal of Christian Reconstruction*, Vol. II, No.2. 1986-87.

Seerveld, Calvin, *Cultural Objectives for the Christian Teacher*, Toronto, Canada : ICS, n.d.

Spier, J.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76.

Spykman, G. J., *Christian Faith in Focus*, Ontario, Canada : Paideia Press Ltd., 1992.

Stronks, Gloria Goris and Doug Blomberg ed., *A Vision with a task*,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s, 1993.

Van Brummelen, Harro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 Christian Approaches to Learning & Teaching*, Burlington, Canada : Welch Publishing Co., 1988.

Van der Walt, B.J., *Being Human in a Christian Perspective*,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77.

Van Dyk, John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2) : 26-27. 1986.

_____,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3) : 10-11. 1987.

_____,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I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3) : 10-11. 1987.

교육목회의 개념과 전략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f Concept and Strategy of Educational Pastoral Care

강 용 원*

목 차

1. 서 론
2. 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의 본질
3. 교육목회의 정의와 가능성
4. 교육목회의 세 가지 길
5. 결 론

1. 서 론

교육목회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여러가지 종류의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는데, 예를 들면 병원목회, 장애인목회, 학원목회 등이다. 그래서 교육목회라는 말이 어떤 특수한 형태의 목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다. 연구자는 교육목회를 어떤 특수한 목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하면서, 그 개념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육목회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체적으로 시도하면서, 몇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자 한다.

* 교수(기독교교육과), 실천신학전공